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작·연출. 신해연

악어 시: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2020. 11. 20. - 11. 29. 소극장 판

다시
연극이
있습니다

“다시 연극이 있습니다”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극계의 활동 위축과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이 진행하는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연극이라는 일상이 마비되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연극단체 또는 개인이

다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공연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던 중에 취소된 공연을 다시 올리고자 하는 팀 중
공모를 통해 공연장과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0년 6월 공모사업 공고, 7월 접수, 7월 말 진행된 심사를 통해 단체가 선정,
공연 일정 및 공연단체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2개 단체가 확정되어
관객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극단 토끼가 사는 달 <열여덟 어른> 박도령 원작, 유나영 각색·연출 2020.11.6.-11.15
프로젝트 c <악어 시> 신해연 작·연출 2020.11.20.-11.29.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악어 시>는

서울시극단의 창작플랫폼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창작플랫폼 올해의 작가 선정

‘악어를 키우는 시인’의 이야기를 구상

겨울, 1차 낭독

2019년 가을 2차 낭독을 통해 대본을 발전시켰으며

2020년 4월 공연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다시 연극이 있습니다” 사업에 공모, 당선되어

11월 소극장 판에서 관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C 대표 신해연 는

낭독에 참여한 후 정식 공연에 함께하고자 했던 창작자들과

새롭게 참여한 창작자들이 모인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악어 시



작·연출 신해연

2020 <체액>

2018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요>

2016 <열다섯>

2018년 '악어 시'를 썼다. 2019년 베를린으로 떠났다. 2020년 '악어 시' 공연을 보러 잠깐 돌아왔다. 코로나가 시작됐다. 잠깐은 어느 덧 일 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공연은 취소 됐다가, 다시 시작 됐다가, 다시 취소되기를 반복했다. '취소'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았다. 퍼즐 놀이 같은 독일어를 배우며, 말을 잃은 기분이었고, 희곡을 쓰는 나 역시 자주 말을 잃은 기분이었다. 나의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기분. 연극 계속 해도 되나? 코로나 시대에, 굳이 연극 해야 하나? '악어 시'를 내가 해야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솔직히 쫓 됐다고 생각했다. 자주 길이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같은 말이다. 이 도시에서 시인으로 살 수 있나? 시를 원하지 않는 시대에서 '시인'으로 살면, '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각자의 시와 각자의 악어가 있기를 바란다. '요즘 시대에, 연극 한 편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하고 싶다. 그것이 어떤 시대이든,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고 싶다.

SYNOPSIS

"넌 악어야. 남들이 뭐라고 하건, 넌."

건강원에서 주둥이가 묶인 채 건강식품으로 팔리길 기다리는
새끼 악어를 발견한 시인은 악어의 몰락을 견딜 수 없어 집으로 데려온다.

시인은 공동주택에서 중학생 소녀와 소녀의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

소녀는 매일 영어공부를 한다.

자신의 삶에 부재한 근사한 꿈과 모험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먼 나라에는 있는 것처럼.

시인은 악어에게 이 도시의 법칙과 악어다움에 대해 가르치고,

소녀는 친구를 통해 새로운 말과 새로운 세계에 대해 배운다.

소녀는 떠나기 위해, 악어는 이곳에 머물기 위해,

각자 새로 만난 세계에 대해 배워 나가고,

시인은 악어 키우기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시'를 쓴다.



백성철 시인 역

연극 <이게 마지막이야>
<죄와 벌> <엘렉트라> 외

박진호 악어 역

연극 <결혼>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
<여자는 울지 않는다> 외



정혜영 애인 역

연극 <결혼> <국산좀비>
<서치라이트 - 영자씨의 시발택시> 외

김민혜 소녀와 이방인 여자 역

연극 <함익> <포트폴리오> <그 개> 외



만드는 사람들

작·연출 신해연

무대디자이너 김종석

조명디자이너 이동진

의상디자이너 우영주

분장디자이너 김근영

분장팀 김기호

소품디자이너 최소리

음악 박소연

음향디자이너 이현석

움직임디자이너 유재미

조명오퍼레이터 방이현

기획·조연출 이보미

출연 김민혜

박진호

백성철

정혜영

제작 프로젝트 C

대표 신해연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김태연 신승호

조명감독 류선영 임수연

음향감독 이병석 장도희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마케팅 김수현 변정원 조영채

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이너 WT

옥외광고 영기획

홍보물 인쇄 인타임

홍보 사진 만나사진작업실

기록 사진 김솔

기록 영상 D.O PICTURES

리플렛 디자인 김은총

리플렛 인쇄 미림아트

티켓 이현아

매표안내원 김인혜 권소담 어주희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이지은 이해조

김소희 이민경 임지은 송솔

황지수 김성혜 송영은

배연준 김지수 박주은

송민경

공연기획 총괄 지민주

기획 프로듀서 김옥경

주최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